



왕흥도시 연길,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의 비결

어떤 왕흥도시들은 마치 일시적으로 개방한 무대마냥 특정한 시간대에 등장하여 환호와 함성, 생화, 선물을 받아안은 뒤에는 방문량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공연이 막을 내리면 도시는 재빨리 원 상태를 회복하고 자자하던 명성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연길은 그렇지 않다. 2년전, '조선족공주' 관광활영으로 인터넷을 달군 이후 지금까지 연길시의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상주인구가 70만명이 안되는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올해 5.1절 기간 국내외 관광객을 연인원 72만 4,000명 정도에 동기보다 5.1% 증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15억 1,000만원 실현해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하여 연길시는 마봉와(马蜂窝)에 발표된 <2024년 5.1련휴 동북지역 열점 목적지 20강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어떻게 하면 깜짝 왕흥도시가 되는 것을 피면하고 장기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하면서 관광객들의 발목을 묶어둘 수 있을까? 이는 왕흥도시들마다 머리를 굴리는 골치거리 화제이다. 이 문제를 연길시는 커피 한잔, 사진 한장, 시장 하나로 일목로연하게 해결했다.

커피 : '매 만명당 커피점 소유량' 상해의 4배

연길에서 10여년간 커피업을 경영해온 최봉화(40세)는 연길시 '현역 커피왕'의 골기를 직접 목격해왔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인 최봉화의 커피에 대한 첫 기억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씨야에서 장사를 하는 친척이 가져온 것이었는데 맛이 참 좋았습니다. 이는 당시에 아주 류형이었지요." 그녀의 회억이다.

'변경무역 + 류행'은 산업의 초기 형상을 다그쳤다. 연길사람들은 집 문 앞에서 자기의 카페를 열기 시작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연길에서 크게 류형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800여개나 되는 커피숍이 거리와 골목마다에 널려있다. 따라서 연길의 '매 만명당 커피숍 소유량'은 상해의 근 4배에 달하게 됐다.

커피 한잔 손에 들고 연길의 거리에 서 출책 사진 한장 찰카하기... 이는 더없이 레사료와 보이지만 이 커피잔은 한 도시의 풍토인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빠른 생활절주 속에서 그 야말로 안정맞춤한 한점의 정신완화제가 된다.

커피시장의 변영을 '드러난 공(显功)'이라고 한다면 현지 커피산업사슬의 확장, 인제 체계의 건설, 연구 개발 력량의 장대는 바로 '숨은 공(显功)'이다.

얼마전에 있는 제3회 중국(곤산)커피산업대회에서 최봉화가 개발한 '연길 사과베커피'가 무척 인기였다.

"막걸리커피, 언베커피, 누룽지라떼, 사과베도라지차..." 연길시상무국 종합과 과장 김연은 근년에 현지인들은 커피와 차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당지에서 나는 식재료를 커피에 융합하여 적지 않은 새로운 종류를 내와 연길 커피의 지역성을 강화했다



고 소개했다.

해마다 천명을 헤아리는 연길 젊은이들이 현지의 커피학교에서 전문 양성을 받는바 연길 본토 커피 인재 대오는 끊임없이 그 후계자가 속출하고 있다.

커피 원두 한알 생산하지 않는 연길시는 이로써 '현역 커피의 왕' 보좌에 자리를 단단히 굳히게 된 것이다.

사진 : 하루에 만을 헤아리는 '조선족공주'들이 밀려들다

"저쪽을 보며 아래턱은 조금 쳐들 어주세요..."이어 찰카 소리와 함께 '공주'가 탄생한다.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는 거리에 어부모를 쓰고 온몸에 카메라 부품을 걸고 달고 한 전문 사진사가 조선족 민족복식 차림을 하고 정교한 화장을 한 유람객과 함께 드나드는 모습을 늘 볼 수 있다. 빈번히 눈길을 끄는 '연길공주' 관광활영 사진이 바로 이런 조합에서 나오는 것이다.

"연길은 가는 곳마다에 '공주'가 널려있는 도시...", "하루에 만을 헤아리는 '조선족공주'가 몰려든다." 네티즌의 댓글은 연길 관광활영 업계의 흥성을 보여준다.

2022년 한 관광활영팀이 연길의 조선족 풍정에 눈독을 들이면서 관광활영 사진이 인터넷을 달군게 되었고 당해 민속원의 려객 흐름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류량'이 지속적으로 융솟을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절강위성 TV, 호남위성 TV를 현지에 초청하여 예능프로를 촬영하고 '몰입식 려행 + 스타 류량 + 고주파 상호작용'으로 공진하며 왕흥 도시에 류량을 지속적으로 주입했다.

동시에 연길에서는 중국조선족민속원을 승격, 증축하여 현재의 부지면적이 9.4헥타리이고 건축면적이 6,145평방미터인 민속풍토인정 경관 결합대로 만들었다.

2022년 8월, 중국조선족민속원 입구에는 관광활영을 하는 영업집이 두 집 밖에 없었지만 년말까지 불과 녀달만에 40~50집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오늘날 민속원 부근의 관광활영집은 이미 700개를 초과했다.

올해 5월, 중국조선족민속원은 대중평론 '꼭 놀아야 할 순위'(必玩榜)에 성공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인터넷에서 가장 주목받는 관광지의 하나로 되었다.

관광활영 사진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인기 폭발에 이르기까지 연길은 '드러난 공'과 '숨은 공'을 제대로 수련했다.

지난해 연길시에서는 적시적으로 <연길시 문화관광시장 규범화 관리 실시의견>을 내놓고 환경정비, 치안보장, 교통질서, 지원봉사 등 방면에서 현지 문화관광시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포지하고 안내했다.

올해 5.1절 기간 연길의 기관 및 기업사업단위들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4,291개의 주차자리를 내놓음으로써 자가용 관광객들의 주차에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연변대학 왕흥벽 앞에는 교통관리부문, 시장감독관리부문 일꾼들이 주야로 지키고 서있는데 인파로 붐비는 왕흥벽 앞이지만 늘 질서정연하다.

길가의 음식점과 술집은 봉사가 규범화되고 가격이 투명하며 일찍 본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던 가게는 신속하게 방향을 바꾸어 '긴 인기'의 연길이 가져다주는 고객 류동과 상업 기회를 안정하게 향수하고 있다.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의 사이에서 연길은 한걸음 자기에게 속하는 '장기적인 인기'의 길을 개척한 것이다.

시장 : 택배상자마다에 화기에애포함 넘쳐

인터넷 인기는 연길에 장기적으로 인기를 누리려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방문량 데이터의 배후에서 '소리없이 돈을 벌'던 연길은 한갈래의 남다른 '비주류왕흥'의 길을 걸어냈다.

어느 평범한 주말의 연길시서시장. 서시장은 과거에는 현지인들이 일용 잡화를 구매하는 곳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연변의 특산물 소매가 가장 집중된 시장으로서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왕흥 핫플로 되었다.

시장 안에는 조선족 전통 먹거리를 사려는 유람객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으며 택배를 기다리는 김치, 명태, 떡 등이 상자들이로 쌓여있다.

이 상자마다에는 더없이 소중한 화기에애포함이 담겨있는 것이다.

지역 인문을 삶에 융합시키고 동서남북의 유람객들과 상호 교류하며 정감의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도시 마케팅의 저층 톤리는 혹여 '비주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길에 대해서만은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문량의 비밀번호일 수도 있다.

왕흥도시 마케팅은 결코 온라인에서 한번에 결정되는 장사가 아니다. 관광객들이 걸으로 보아낼 수 없는 '품'을 침착하게 들여야 한다.

연변대학 왕흥벽은 평범하기 그지 없는 8층 상업청사일 뿐으로 밖에는 70여개의 이중언어 간판이 걸려있다. 2021년 2,000만의 팬을 가진 한 스타가 이곳에 출책하면서 왕흥벽의 명성이 크게 높아졌다. 연길시에서는 즉시 왕흥벽의 밝음도를 높이고 업그레이드하고 개조하여 왕흥벽의 시각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증강시켰다. 빛나는 도시의 활력은 '이중언어' 문화의 지역특색을 말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여 사람들은 '외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길이 가성비가 더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음력설 려객 고봉 운수력이 긴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2월 8일 -17일 사이 연길시에서는 153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애심차대를 결성했다. 고속철역, 서시장, 민속원에서 무료로 손님을 맞고 배려해주고 관광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자문을 받아주는 등 자원봉사를 제공했다. 이렇게 루계로 애심차 1,024대를 출동하고 연인원 2,756명의 관광객에 봉사했다.

2022년 중국(연길)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가 건설을 비준받았다. 연길시에서는 즉시 다국전자상거래보세 지구 체형점을 왕흥벽거리 옆에 앉혔다. 2023년 연길시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 총액은 1.75억원에 달해 49.4% 증가했다.

이 49.4%의 증가량이 너무 대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연길 류량의 현명화 사고 방식과 수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 길림일보

공안부 : 상주지 호적등록제도 추진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일 개최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는 <인간분위의 신형 도시화(城镇化) 전략 5년 행동계획 심층 실시>와 관련된 정황을 소개했다. 공안부 치안관리국 국장 구보리(仇保利)는 회의에서 공안부는 지역에 따라 도시별로 시책하면서 이전정책을 가일층 완화하고 상주지 호적등록제도를 추진하여 농업 이전 인구의 도시 입적을 더욱 잘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보리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21년-2035년)>이 실시된 이래 공안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계획 요구를 열심히 관철락착하고 호적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면서 각지에서 호구 이전 정책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보완하도록 추동했으며 중소도시 입적 문턱을 기본적으로 취소했는바 성도, 동관, 합비 등 일련의 대도시가 이전 제한을 가일층 개방 확대하면서 점점 더 많은 농업 이전 인구가 온 가족과 함께 도시에 입적하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000만명이 넘는 농업 이전 인구가 도시에 입적했다.

구보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간분위의 신형 도시화 전략 5년 행동계획 심층 실시>는 미래 5년간 호적제도와 개혁 심화에 대해 명확한 배치를 했는바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도시는 입적 제한 요구를 취소하고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 내지 500만명인 도시는 입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며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500만 이상인 초특대도시는 점수 입적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안부는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 락착하는 것과 결부시켜 관련 부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종심으로 추진하여 각지에서 합법적 안정취업 혹은 합법적 안정주소(임대 포함) 기본조건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현지 실정과 도시 실정에 맞게 시책하여 이전정책을 가일층 확대 완화하고 상주지 호구등록제도를 추진함으로써 농업 이전 인구의 도시 입적을 촉진하게 된다.

/ 신화사

림강시 부시장, 공안국 국장 하곤 련사로 추서

'백산발표'(白山发布) 소식에 따르면 8월 6일, 하곤렬사 추모회 및 영결식이 림강시에서 거행되었다.

7월 하순이래 림강시는 지속적인 호우로 국부지역에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다.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림강시 부시장이며 공안국 국장인 하곤은 심

야에 비를 무릅쓰고 일선으로 달려갔으며 홍수와의 박투와 위험구조 가운데서 불행하게 공무로 희생되었다.

8월 3일, 길림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하곤은 련사로 추서되었다.

/ 길림일보

공청단길림성위 학업지원활동 조직

일선 공청단길림성위는 류재아동, 류동아동, 복역인원의 미성년 자녀 등 중점 청소년 군체를 대상으로 '12355 청춘호위' 여름방학 인터넷 학업지원 공익 활동을 조직했다.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대학교에서 온 2,152명 대학생 자원자들은 '학습 파트너'를 조직하고 '일대일', '다대일'의 형식으로 1,120명의 특수가정 자녀들에게 온라인 학업 보도를 진행해주었다.

이외에 대학생 자원자들은 '한가지 건전한 취미 양성, 매일 한차례 가사로동 참여, 매일 한차례 체육 단련, 한편의 흥색영화 관람, 한명

의 혁명선렬 기리기(한개의 혁명선렬 이야기 전하기)'를 내용으로 하는 '5개 1' 성장동반봉사를 제공했다.

근년에 공청단길림성위는 청소년의 학업 보도와 동반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주면서 중점 청소년 가정들로 하여금 공청단의 관심을 느끼도록 했다.

향후 공청단길림성위는 계속하여 길림성 12355 청소년봉사대 건설을 강화하고 활동 담체를 적극 탐색, 혁신하여 전 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호위하게 된다.

/ 중국청년보

전국 선진 명단 공시! 길림성 2개 집단과 5명 개인 입선

최근 문화관광부가 국가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 선진집단 및 선진개인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길림성에서 2개 집단과 5명 개인이 공식 명단에 올랐다.

국가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 선진집단 명단에는 연변문화예술연구센

터(연변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와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문화사업소(전고르로스현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 선진개인 명단에는 길림성문화관광청 무

형문화유산처 2급 조사연구원 원원(녀), 길림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관광국 무형문화유산처 2급 주임 과원 왕동걸(녀),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 리수현정협 부주석, 길림성리수현지방회국단유한책임

/ 인민넷

회사 리사장, 리수현 2인전전승보호센터 주임, 1급 배우 조단단(녀), 왕청현문화관 관장 손지강, 송원시 군중예술관(송원시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관원 곽광우 등이 올랐다.



최근년간 안도현에서는 특색 식약용균 재배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산업집군으로 농업을 련합하고 이끄는 기제를 출범, 식용균 룽색 고품질 고효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식용균 혁신역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특색산업으로 현역경제를 성장시키는 발전의 길을 모색했다. 사진은 종업원들이 길림순원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 새송이버섯생산기지에서 새송이버섯을 따고 있는 장면이다.

/ 길림일보